

소명의식을 통해 우리가 **최후의 부르심** 즉 **종국(사망)**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견인 역할**을 한다.  
**강박증에 빠진 삶(자기의 업적이라는 방향에서 진행된 피카소의 작업)**과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노예제 폐지라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자신의 대에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평안히 다음 세대에 넘긴 월버포스의 모습)**을 대조해 단순히 작업이 아닌 그 이상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목표로서의 소명의 의미를 부각함.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죽음이라는 최후의 부르심(세속적인 삶에서는 종결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절정임)의 의미를 조명한 것.**  
 소명을 직업으로만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직업을 잃게 되어도 이어지는 면을 강조함.  
**행위 소명과 존재 소명을 구분해 직업 외의 측면에서 소명이 필요함을 강조함.**

## 최후의 부르심

몰트케라는 이름은 프러시아와 독일 역사에서 200년간 자랑스럽게 울려 퍼진 이름이다. 헬무트 폰 몰트케는 비스마르크 수상의 육군 원수로서 덴마크,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을 무찌른 선봉장이었다. 그가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는 1871년 스당(Sedan)에서 프랑스 제국 군대를 패퇴시킨 것으로, 그 결과 파리를 점령했고 독일 제국을 탄생시켰다.

그래서 몰트케 원수의 4대 조카인 헬무트 야메스 폰 몰트케(Helmuth James von Moltke)는 유명한 튜턴족의 후손으로서, 훌륭한 선조에게 하사된 크라이사우 지방의 저택에서 사는 특권을 누렸다. 그 역시 조상을 닮은 용감한 인물이고 독실한 신앙인이었지만 그의 소명과 장래의 명성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있었다. 그의 4대 선조는 19세기 독일의 가장 위대한 군사 전략가였다. 그러나 **야메스 몰트케는 것처럼 빛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히틀러 치하에서 20세기 독일의 가장 유명한 순교자의 대열에 합류했다.**

1930년대에 몰려온 정치적 폭풍의 구름 때는 당대 최고의 독일인들에게 고통스러운 결정—도망갈 것인가, 남을 것인가—을 내리게 했다.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소설가 토마스 만, 건축가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 등 많은 이들이 해외로 망명했다. 한편 다른 이들은 남아 있으면서 얼마나 저항해야 할 것인지 고심했다. 디트리히 본회퍼처럼 야메스 몰트케—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26세였다—도 쉽게 해외로 도피할 수 있었다. 거의 그렇게 할 뻔했다(그의 아내 프레야는 런던에서 “저는 커튼까지 골라 놓았죠”라고 말했다).

그러나 1939년 9월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는 본회퍼처럼 고국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이름과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연스럽게 반체제주의자들의 집결점이 되었다. 국제법을 전공한 몰트케는 독일군 정보부에 징집되었는데, 훗날 그곳이 반(反)나치 운동의 중심지가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그는 국제법의 제약을 통하여 나치를 제어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자기 직책을 이용했다. 또한 암암리에 두 가지 과업에 전념했는데, 하나는 유대인의 추방 및 살해와 포로 군인의 처형을 저지하는 것(1943년 그의 제보 덕분에 덴마크에 살던 수천 명의 유대인이 구출되었다)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장 총명한 반정부 인사들을 크라이사우 저택으로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나치 정권 붕괴 이후 민주 독일의 건립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다. 미국 외교관이었던 조지 케넌(George F. Kennan)은 『비망록』(Memoirs)에서 몰트케를 “도덕적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며, 제2차 세계대전 중 내가 양 진영에서 만난 이들 중 가장 폭넓고 진보된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썼다.

그러나 몰트케의 유명한 이름마저도 나치를 영구히 저지할 수는 없

었다. 결국은 그 또한 배신당하여 1944년 1월 19일 체포되었다. 그는 히틀러 암살 음모에 본회퍼와 함께 가담하라는 제의를 거절했고, 1944년 7월 20일 그 음모가 실패했을 때에는 수감된 지 6개월이 지난 후였다. ‘모든 악당의 두목’ 히틀러는 그해 4/4분기 동안 여섯 번의 암살 기도가 있었음에도 무사히 피해 나갔다. 7월의 암살 기도 이후 카나리스(Canaris) 제독과 디트리히 본회퍼를 비롯한 4,500명이 살해되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복수의 대상이 서서히 확대되어 모든 반체제 인사에게 미쳤는데 거기에는 몰트케도 포함되었다.

크라이사우 서클(Kreisau Circle)에 속했던 몰트케와 일곱 친구들은 1945년 1월 악명 높은 ‘인민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기소자는 피의 재판관이라 불린 롤란트 프라이슬러(Roland Freisler)였다. 몰트케는 아내 프레야에게 보낸 참으로 감동적인 편지에서 그 비밀 재판을 우화적으로 묘사했다. 그 편지는 1929년 연애 시절부터 1945년 그가 죽기까지 두 사람이 주고받은 1,600통의 편지 중 마지막 것이었는데, 그 편지들은 전쟁이 끝나기까지 몰트케 가문 저택의 벌통에 숨겨져 있다가 1990년에 『프레야에게 보낸 편지』(Letters to Freya)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몰트케가 아내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우 가까이 느낄 수 있다. 그 편지는 아내에게 전하는 최후의 메시지였으므로 부분적으로는 아름다운 연애 편지였다. “당신은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빚어내기 위해 사용하신 수단이 아니요. 오히려 그대는 나 자신이요. 당신은 나의 고린도전서 13장이요. 이 장(章) 없이는 어떤 인간도 인간다운 존재일 수 없소.”

그 편지는 또한 저항자 몰트케의 유언장이다. 나치 기소자의 연설에 인용된 바, “우리와 기독교의 유사점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전인(全人)을 요구한다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의 버팀목이었다. 그래서 그는 기소자 앞에 “개신교인으로서가 아니라, 대지주로서가 아니라, 귀족으로서가 아니라, 프리시아인으로서가 아니라, 독일인으로서 아니라,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몰트케의 편지는 영원으로 떠나는 출발점에 있는 인간의 마지막 말이기도 하다.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면 충격적인 느낌만 받을 것이라고 항상 상상했었다. 즉, 이제 너에게는 태양이 마지막으로 지는 것이고, 이제 시계는 12시간씩 두 번밖에 가지 않을 것이며, 이제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라고. 그러나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내 기분이 몹시 고통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그저 하늘에 계신 주님께 나를 그곳에 있게 해 달라고 빌 뿐이다. 것처럼 죽는 것이 육신에게는 분명 더 쉽기 때문이다.”

37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몰트케는 “지금 내 앞에 여전히 거친 길이 놓여 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 편지의 주제는 감사이고 그 어조는 신뢰하는 것이다. “당신의 남편은 엄청난 과업을 감당하도록 선택되었소. 주님이 그와 함께 감당한 모든 난관, 끝없는 우회, 복잡한 지그재그 곡선들, 이 모든 것이 이 한 시간 동안 갑자기 설명되었소. 모든 것은 뒤돌아볼 때 의미를 얻게 되는데, 그 의미는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오.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와 자매,

어린 아들들, 크라이사우와 그 단체의 고통...이 모든 것을 마침내 단 한 시간에 이해하게 되었소.”

몰트케는 결론을 내렸다. “사랑하는 당신, 내 삶은 끝이 났소... 그렇다고 내가 기꺼이 좀더 살고 싶고, 이 땅 위에서 기쁘게 당신과 좀더 살기 원한다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소.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나에게서는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과업이 필요하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곧 그 과업은 완성되었소.”

전쟁의 끝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플뢰첸제 감옥에서 처형된 10명 중에는 헬무트 야메스 폰 몰트케 백작이 포함되어 있었다. 함께 공모에 참여했던 한 동료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는 모든 무시무시한 계약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웠으며, 친절하고 유익하며 사려 깊은, 참으로 자유롭고 고상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했다. 훗날 그의 아내 프레야는 버몬트 주에 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 생각에는, 히틀러를 반대하는 군인이었던 남편을 잃는 것보다 히틀러를 지지하는 군인이었던 남편을 잃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 같다.”

### 유종의 미

헬무트 야메스 폰 몰트케의 죽음이 지닌 빛나는 용기는 소명의 진리에 담긴 마지막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즉, 소명은 인생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특전과 그 도전에 중심적인 것이다.

‘멋지게 죽는 것이’ 높은 이상이었던 시대와 사회가 여럿 있었다.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가 88세였을 때 그를 축하하기 위해 메달이 주조되었다. 한 면에는 그의 경력이 새겨졌다. 다른 면에는 눈 먼 순례자가

막대기를 잡은 채 개 한 마리를 따라가는 그림과 함께 시편 51편 말씀이 있었다.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미켈란젤로 자신이 이 시편을 골랐는데, 그것은 자신을 높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로 그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조각가이자 화가, 건축가, 시인이었던 그는 마지막에 쓴 유명한 “단념의 소네트” 중 하나에서 깊은 신앙심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내 인생 항해는 부서지기 쉬운 배를 타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건너서 마침내  
모든 이가 반드시 거쳐야 할 항구에 도달했나니,  
이 항구를 지나면 모든 악행과 모든 선행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리라.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에는 매우 드물다. 그것은 단지 현대가 죽음을 부인하는 시대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늘날은 평균 수명의 상승, 노인 인구의 증가, 노인 복지 및 혜택의 급증 등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죽는 것보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이들의 '노후'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소명의 진리는 우리 인생의 시작에서만 끝나지 않거나 인생의 마지막에도 중요하다. 소명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중요한 열쇠와 같다. 소명은 인생의 말년에 맞이하는 세 가지 큰 도전에 대처하도록 돕는다.

첫째, 소명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도달할 때까지 목적의식을 갖도록,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는 가운데 인생 여정을 걸어가도록 박차를 가한다. 사람들은 보통 인생 여정과 믿음의 도에 대해 동일하지만 정반대되는 오류를 두 가지 범한다. 하나는,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으로서,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는 미성숙함이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과 승리를 강조하는 것은 옳지만 문제는 불확실성과 비극과 불완전성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으므로 마치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행동한다. 모든 진리가 칼로 자른 듯 분명하고, 모든 신비가 해결되었고, 모든 희망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으며, 모든 결론이 이미 내려졌다. 그러면 여정이라는 개념은 축소되어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 버린다. 모험, 시련, 위협, 후퇴, 재난 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 그들은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한다.

다른 하나는, 교육 수준이 좀더 높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여정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끝없는 여정 자체가 그들의 열정이요 생활 방식이 되는 경우다. 그런 사람은 도달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고, 어떤 길을 발견했다거나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궁극적인 오류로 여긴다. 우리가 앞에서 만났던 영원한 추구자들처럼 그들에게는 여정 자체가 전부다. 의문과 탐구와 탐색과 극복 등이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온통 모호할 뿐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비상한 균형을 이룬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요 그도를 따르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정 가운데 있으며, 그에 수반되

는 모든 대가와 위험과 위협 부담을 안고 있는 여행자다. 이생을 사는 동안에는 결코 우리가 도달했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왜 본향을 잃어버렸는지 알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우리는 여행자이며, 비록 그 길은 이미 찾았지만 목적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가 직업에서 은퇴할 수는 있으나 개인적인 소명에서 은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공적인 책임에서 물러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적 소명에서는 퇴진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길의 끝을 볼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할 수는 있으나 그때에는 우리의 눈이 길 끝에 계시는 아버지와 집에 더 가까이 고정될 것이다. 헨리 나우웬(Henri Nouwen)이 썼듯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는 끝장난 자다. 이제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자는 길 잃은 자다.”

둘째, 소명은 우리가 직업의 종결을 소명의 종결과 혼동하지 않도록 방지해 주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이 소명과 직업을 동일시하는 ‘개신교적 왜곡’이 마지막으로 흉한 머리를 쳐드는 곳이다. 만일 소명을 우리가 하는 일에 한정시키면 그 일이 우리의 손에서 떨어질 경우—갑자기 실직하든가, 파면되든가, 치명적인 병에 걸릴 수 있다—우울증이나 깊은 회의에 빠지기 쉽다.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가? 직업이 소명과 뒤얽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직업을 잃는 것이 곧 소명 의식을 잃는 것을 뜻하게 된 것이다.

피카소는 한 친구에게 “한 사람이 어떤 것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때 그 일을 중단하게 되면 더 이상 존재 가치를 찾지 못하게 된다”

고 말했다. 그 결과는 강박적으로 쫓기는 인생이었다. 한때 이상화되었던 피카소의 재능은 그를 노예 상태로 속박하였다. 비어 있는 캔버스는 모두 그의 창의성에 대한 일종의 모욕이었다. 그는 마치 중독자처럼 자신의 일을 만족의 근원으로 삼았으나 결과적으로는 불만족만 남았다. 피카소는 생애 말년에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다. 바로 일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때는 가족이든 친구든 그를 안위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나는 숨을 쉬듯 그림을 그린다. 나는 일할 때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손님을 대접할 때에는 괴로움을 느낀다.”

이와 대조적으로, 윌리엄 윌버포스는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부름 받은 삶을 살았다. 그는 1833년 6월 런던의 카도간 플레이스에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을 때 위대한 승리의 소식, 곧 영국 전역에서 노예제가 폐지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고는 3일 후 숨을 거두었다. 그 대의를 계속 이끌고 나갈 후계자로 선택된 토머스 벅스틴(Thomas Fowell Buxton)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하원에서 성공적으로 노예 해방의 법령을, 즉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조문 중 하나인 그 법을 통과시키던 바로 그날 밤 우리 동지의 영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신기한 사실이다. 그의 수고가 끝난 그날이 바로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그처럼 완벽한 타이밍은 지극히 드물다. 자신의 ‘수고’와 ‘생애’가 동시에 끝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죄로 인해 손상되고 부서진 세상에서는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과업이 끝나기 전에 종결되든지 인생의 막이 내리기 훨씬 전에 우리의 과업을 빼앗기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명 의식이 우리가 맡은 최상의 최고

의 과업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고, 더 길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대부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성의 이야기다. 라인홀드 니부어는 이렇게 썼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중에 우리 생애 내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에 의해 구원받아야 한다. 진실하거나 아름답거나 선한 것 중에 역사의 순간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의해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우리가 홀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의해 구원받아야 한다. 어떤 훌륭한 행동이라도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만큼 친구나 적의 관점에서도 훌륭하게 보이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최종적인 형태, 곧 용서에 의해 구원받아야 한다.”

존 코튼의 명설교는 죽음을 맞이한 시점에서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멋지게 묘사한다. “한 사람의 소명과 관련하여 믿음이 발휘하는 마지막 역할은 이것이다. 믿음은 담대하게 그의 소명을 하나님이나 인간의 손에 내맡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의 일이 끝났으니 그의 소명을 내려놓으라고 부르실 때마다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간의 아들들을 훨씬 능가하는 반응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소명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될 때 매우 수치스러워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소명을 포기해야 할 경우에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편안하고도 담대하게 그것을 내려놓는다.”

한 친구가 언젠가 윈스턴 처칠에게 그가 은퇴한 로마 황제라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처칠은 “왜 은퇴했다고 하지?”라고 큰 소리로 투덜

거렸다. “어떤 것으로부터든지 은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전혀 없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름받기 전에 먼저 어떤 존재가 되도록 부름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소명은 모두 그분에게 부름받은 것 안에서만 성취된다. 그러므로 소명은 경력에 선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경력보다 더 오래 지속되어야 한다. 직업이 끝을 맞이할 때에도 소명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직업에서 은퇴할 수는 있으나 소명에서는 은퇴할 수 없다. 우리는 때때로 실직할 수 있으나 부름받지 않은 상태가 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죽음이라는 최후의 부르심이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종결을 의미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인생의 절정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여행을 한 다음 드디어 집에 도착한다. 수십 년 동안 목소리만 들어오다가 이제는 얼굴을 보고 실체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부르신 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마지막 부르심은 집으로의 부르심이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과업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위대한 항해사요 모험가였던 프랜시스 드레이크(Francis Drake) 경의 저술에서 각색한 유명한 성공회 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다. “오, 주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종들에게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실 때에는, 그 일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동일한 일을 계속하여 완벽하게 끝낼 때 당신에게 참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 또한 알게 하소서. 당신의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셋째, 소명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격려함

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돕는다. 체스터틴은 그의 걸작 『정통』(Orthodoxy, 아바서원 역간)에서 “당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만 대답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썼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현대인에게서 그런 과묵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는 자신의 교만함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경망스럽고도 유창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한’ 이야기를 한다. 우리의 소명을 단 한 문장으로 규정하고 우리 ‘유산’을 평가하면서, 마치 우리가 그것들을 수레에 싣고 하나님께 갖고 가서 그분의 승인을 얻어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업적에 더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중요성을 유지하려고 힘겹게 애쓰는 가운데 다른 극단, 곧 피로와 절망으로 치달는다. 19세기 작가 반 브룩스(Van Wyck Brooks)는 자서전에서 자기 인생을 개괄한 다음, 그의 노력의 씨앗은 도무지 자랄 수 없는 환경에 뿌려졌으며 밟고랑마저 남아 있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쟁기로 바다를 일구었던 것’이다. 위대한 아일랜드 시인 예이츠(W. B. Yeats)도 비망록 『몽상』(Reveries)에서 비슷한 글을 썼다. “나 자신의 인생의 저울에 달아 본 삶 전체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어떤 것을 위한 준비인 것처럼 보인다.”

교만한 자와 절망에 빠진 자는 모두 하나님만이 하셔야 할 일을 간파한다. 그들은 정체성뿐 아니라 소명의 핵심에 놓여 있는 신비를 잊어버린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저 음성을 듣기만 하면서 그분이 부르신 그런 존재가 되기까지 성장해 간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야 그분이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도록 부르셨는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이 진리를 조지 맥도널드보다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은 없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에서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약속하셨다. 맥도널드는 『전하지 않은 설교』(Unspoken Sermons)에 실린 “새로운 이름”이라는 설교에서 매우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지적했다. “진정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성품, 본성, 의미를 표현해 준다. 그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상징—한마디로 그의 영혼의 그림—곧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오직 그에게만 속한 표시다. 과연 누가 그러한 고유한 본성을 줄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 누구도 한 인간의 본질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맥도널드는 매혹적일 만큼 통찰력 있는 단락에서, “우리의 재능과 소명을 발견하는 것”과 “진정한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단정했다.

오직 한 사람이 자기 이름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에만 하나님은 그 이름이 새겨진 돌을 그에게 주신다. 그래야만 자기 이름이 의미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름을 결정짓는 것은 개화(開化), 완벽함, 완성이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처음부터 예견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영혼의 나무는 꽃이 만발하기 전에는 자신이 어떤 꽃을 피우게 될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완전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명명하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러한 이름은 당사자가 그 이름이 되고 나서야 주어질 수 있다. 하나님 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이름은 그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생각이 표현된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아기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생각에 품고 있던 존재이며, 그 존재는 그 생각을 실현하는 긴 창조 과정을 통하여 늘 유념되고 있었다. 이름을 말하는 것은 성공에 도장을 찍는 것, 곧 “그대 역시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비전과 자신이 성취한 것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 때문에 좌절을 느낄 수 있다. 혹은 당신의 인생 이력서가 타협과 실패와 배신과 죄로 얼룩져 있어서 우울함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은 당신이 할 말을 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도 그 나름대로 할 말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장막이 걷히고 당신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도록 부름받았는지를 알게 되기까지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말라.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다. 누가 감히 이 숭고한 비전에 반하여 우리를 ‘속박당한 존재’라고 모욕하며, ‘용기 있는 존재’라고 뻔뻔스럽게 말하거나 ‘타고난 존재’라는 숙명론을 제기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들렸으나 형태는 보이지 않았던 그 장엄한 시작부터 최후의 부르심 때 그분의 모든 자녀를 향한 계획을 밝히실 절정에 이르기까지, 소명의 특성과 목적은 가장 귀가 멀고 둔감한 자를 제외한 모든 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마음과 영혼을 전율케 한다.

이것을 깊이 숙고하라. 최후의 부르심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올 때 우리가 완전히 소명에 응답했고, 그 도를 좇았으며, 유종의 미를 거둔 모

습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천로역정』에 나오는 ‘진리의 용사’(Valiant-for-Truth)와 같이 마지막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일이 있는 후 ‘진리의 용사’가 다른 이들과 같은 전갈을 받고 소환되었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그리고 그 전갈이 사실이었다는 증거가 있는데, 샘에 있던 그의 주전자가 부서진 것이다. 그는 그것을 깨닫자 친구들을 불러 사실을 얘기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간다고 말했고,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곳에 도달하기까지 경험한 모든 괴로움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 칼은 내 순례길에서 나를 계승할 사람에게 주고, 내 용기와 기술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준다. 내 상처와 상흔은 내가 그분의 전쟁을 치렀다는 증거로서 내가 갖고 갈 터인데, 그분은 이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그를 강가까지 배웅했고 그는 강 속으로 들어가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무덤아, 네 이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강을 건너갔고 건너편에 서는 모든 나팔이 그를 위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